東大新聞

發行人 黃蔣永
編輯人 皆永祿
印刷人 方又榮

主幹 吳洪哲
編輯局長 金容揆
編輯部長 沈揆博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시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 8131~9
本社直通 ☎ 8577

每週火曜日發行

3학년 進級時 18% 脫落있다

卒業定員制 변화可能性 없어

중전의 學事基準 완화 예정

많은 學生 몰린 科에는 보완책 필요

82학번 2學年 올라갈땐 탈락없어

本校生 3명 拘束

朴鍾勉군등 시위 주도로

「3·31사건」 구속생 3年 구형받아

本校·慶州大 前期고사 全國大學教育 聯合會에서 論議할 듯

호국단 선거일정 확정

총·부·단대 학생장은 22일

「考試奬學生 선발 시험」 실시예정

文理大 체육대회 6日 체육관등서

慶州大생활관실습 4學年女學生대상

農생과주최 세미나 이형환교수연사로

「편파 言論」 규탄대회 29일 大佛聯등과 조계사서

1학기期末 考査 일정 28日부터 7월10日까지 12日間

「印度哲學 강연회」 28日 교수세미나실서 열려

農학과 권농일행사 원당 실험농장에서

行大院 특강 신윤표교수 연사로

創刊32周年 기린高校文學의 밤 열린듯

예선에 8백17편 應募 87名 본선 참가

文學콩쿠르 入賞者 名單

「우리 民族의 저력과 슬기는 重工業立國의 意志를 實現하고 있읍니다.」

② 우리나라 중공업의 발자취 (자동차편)

◇학간에 나돌던 2학년의 상급학년으로 진급시에 탈락없다는 것은 낭설로 발표되었으며 이들은 4학년졸업때까지 모두 30%가 탈락하게 된다.

교무당국은 『80년 7·30 교육개혁 조치이후 질량되고 있으며 또 양으로도 변화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밝혀 학간에 나도는 중도탈락이 없고 4학년 졸업에 가서 정원의 학생에 대한 수료를 인정한다는 설을 부인했다. 따라서 81학번인 2학년 학생들은 3학년진급시 초과정원의 18%가 예정대로 탈락하게 되었다.

이는 본교가 지난해 6월 「2학년 진급시 탈락인원을 없앤다」라는 문교부의 발표에 따라 자연 탈락자(휴학자, 제적자, 취득학점 미달로 퇴학처분된자, 자퇴자 등) 를 제외한 모든 1학년 학생들을 진급시켰으나 2학년 2학기시 탈락자 (휴학자, 제적자, 취득학점 미달로 퇴학처분된자, 자퇴자 등)

6月의 勉學姿勢

社說

어느덧 歲月은 新綠이 짙은 6월로 접어들고 있으며 따라서 사실상 이번학기에는 이 달밖에 공부할 時間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3월부터 개학한 우리나라大學들은 대부분 學期中間에 그동안 이수한 學科目들을 일단 點檢하고 넘긴다。

이리하여 本校만보더라도 지난4월하순에 금년도 제1학기 中間考査를 실시했음을 알수있으며 新學期 시작이래 그때까지 本校生들이 절석으로 熱心히 학업에 몰두하였다할만큼 상당스럽게 들을나무랄바없다。

그런데 5월의 本大學校를 돌이켜본다면 中間考査를 끝마친 바로 뒤였고 또한 8일에는 開校紀念日이 있었을뿐만아니라 12일부터 나흘동안 春季祝典이 개최되었음을 잊을수 없다。물론그것이 紀念日이나 祝祭日을 빼놓고 중간 중간에 강의가 진행 안됨은 아니지만 그런 行事없이 계속된 학업에 그의 기술을 두고 있다。또 그렇게 공부할 時間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3월부터 개학한 우리나라大學들은 대부분 學期中間에 그동안 이수한 學科目들을 일단 點檢하고 넘긴다。

이리하여 本校만보더라도 지난4월하순에 금년도 제1학기 中間考査를 실시했음을 알수있으며 新學期 시작이래 그때까지 本校生들이 절석으로 熱心히 학업에 몰두하였다할만큼 상당스럽게 들을나무랄바없다。

그런데 5월의 本大學校를 돌이켜본다면 中間考査를 끝마친 바로 뒤였고 또한 8일에는 開校紀念日이 있었을뿐만아니라 12일부터 나흘동안 春季祝典이 개최되었음을 잊을수 없다。물론그것이 紀念日이나 祝祭日을 빼놓고 중간 중간에 강의가 진행 안됨은 아니지만 그런 行事없이 계속된 학업에 그의 기술을 두고 있다。또한 그期間도 短期間이 아닌 3분의2가 지난 時點이며 따라서 제1학기의 반나지 못한 셈이라고 말할수 있다。학기말에 가까울수록 우선 期末考査를 생각하지않을수 없는 까닭에 그에 대비한 공부를 해야할런 물론을 必要조차 없다。

또한 현재의 대학교과과정에 따르면 거의 學期別로 학과목을 끝마치게 되어있는 實情이며 그 때문에 6월에는 자기가 수강하고있는 학과목에 대해 자기나름대로 整理를 하여 매듭을 짓지않으면 아니될 時期라고 여겨진다。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지난달에 祝祭같은것이 없었던하더라도 이달에는 한동안 부지런이 공부해야할터라고 느껴진다。

원래 대학이란 학문의 전당이며 학문연구보다 더 앞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다시말해서 학생의 본분이 학업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그러한 학업에 있어 어떤이는 소위 試驗을 보기위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다。大學을 평가함에있어 어떤이는 소위試驗의 합격에 그의 기준을 두고 있다。또한 그理由로서 합격이 학생의 實力을 반영하고 있기때문인을 들고있다。이러한 관점에선다면 勉學풍토의 조성을 강조하고 부족하다 할수있을것이다。

한편 大學이나 대학생의 한가지 특징을 든다면 대학학의 교육목적을 망각하고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있다。그렇기때문에 一般社會에서도 대학이나 대학생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는 것이 없는것이 아닐까。

회고해본다면 제2次대전때를 불문하고 대학생들은 자기나라가 戰爭에 이기든 지든 相關하지않고 몽부에만 열중했다고 한다。즉 전쟁은 정치인이나 군인에게 맡겼다는 말이다。폭탄이 떨어지고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의실에서 또 도서관에서 책상에 앉아있었다는 사실은 우리人間모두의 共同의 책임감을 깊이느끼게 가는 일이 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말하자면 그 특정인의 행위자체는 우리로 여전만 추어진다면 적지를 가할것이 없다는 뜻이다。大學을 평가함에있어 어떤이는 소위試驗의 합격에 그의 기준을 두고 있다。또한 그理由로서 합격이 학생의 實力을 반영하고 있기때문인을 들고있다。이러한 관점에선다면 勉學풍토의 조성을 강조하고 부족하다 할수있을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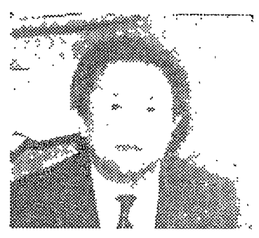
이처럼 학생들이 本務以外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것은 그만큼 공부에만 熱을 올린다는 의미이며 따라 가일층 知識을 넓힐수있을뿐 더러 敎養을 더욱 풍부하게 가질 수있게됨은 明若觀火하다하겠다。지식과 교양이 一定水準에 이를때에 비로소 社會에서 일어나는 事件을 정확히 판별하여 처리할수있는 것이다。

아울러 勉學姿勢를 촉제대하여 높추고 강의시간하에서 갖가하는 일이 없이 恒常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마음을 이번機會에 가져주었으면 좋겠다。大學祝祭는 社會의 보통축제와는 달리 연령하기에따라 얼마든지 行樂을 학업과 연결시킬수있다。이런면을 감안한다면 학사 진지한 면학자세를 갖는다는것은 더욱 切實히 요구되는 바이다。

世界經濟질서 파괴로 스태그플레이션 조래

케인즈와 美國의 經濟政策意志의 표현 강해

桂明善 〈經商大교수·計量經濟〉



○○○○○○○○○○
○ 現代社會에서 숨쉬고 있는 우리 ○
○ 는 思考, 文化, 行動등 어느것이건 ○
○ 「경제」라는 원점에서 종점으로 ○
○ 귀착한다。다시말해 그것은 우리의 ○
○ 모든것을 규정지을수 있는 하나의 ○
○ 원칙이다。그러므로 경제정책은 어 ○
○ 느 政權의 단순한 政治的 제스쳐 ○
○ 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스트롱 ○
○ 아메리카」의 기치아래 美國서 새로 ○
○ 이 대두된 레이거노믹스와 고전경 ○
○ 제학을 알아본다。 <편집자註> ○
○○○○○○○○○○

I

요사이 미국에서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그를 추종하던 部類들이 내제우는 經濟政策이 이상스럽게 매스콤을 통하여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실제로 그 實像은 理論經濟學的인 면에서 크게 평가를 받아야할것은 없는것으로 보는데 社會哲學이라는 美名下에 一般民衆에 保守主義란 상표를 내걸고 고전하고있다。

前카터대통령을 불리치고 權座에 오른 레이건의 經濟政策은 과연 어떠한것인가?

학자는 그의 이론이 공급측면을강조한다고 하여 反케인즈的 경제이론에 근거를 둔것처럼 착각하는데 필자 자신이나 경제학을 전공하는 여러 학자들도 일반적인 경제이론에서 이탈하여 공급측면만을 강조하는 혁신적인 이론이 대두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현존하는 미국의 경제학자중 그 누가 대통령측근들이 주장하는 소위 社會哲學을 경제이론화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하는가?말한 프리드먼이 貨幣經濟理論(monet arism)을 주장함에 있어서 거시 체용한 피셔의 교환방정식이 거시적 국민소득이론이며 우리 모두가 케인즈학파에 속한다고 주장한 말은 (We are all Keynesian) 너무나도 유명하다。비록 그의 분석방법이 완전히 상이한 화폐이론의 매개체를 사용했을에도 거시적 소득분석인。이상 케인즈학파에 속한다고 하였다。

그후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保守主義란 美名으로 레이건의 경제정책자문에 많이 응했던것은 사실이나 반케인즈적인 일장에서 그들의 理論을 비호한것 같지는 않다。공급側面을 강조한다하여도 現存이론을 大幅수정하거나 變形시켜 놓지는 못했고 이런면에서 본다면 그들의 主張은理論經濟學的인 뒷받침이 없는 政策意志의 表現인것같다。물론 伝統的인古典學派에 향수를 느끼는 그러한 기미는 보이나 現속에서 그누가 古典經濟學派의 大命題인 세이의 法則을 받아들일것인가?어떻게 보면 常識以下의 主張들로 하는데 나는 이것을 亡靈이라고 부르고싶다。

금세기 초기에 발생한 經濟現像을 해석함에 있어서 케인즈와 프리드먼은 대표적인 兩巨頭로서 일찍대전후의 실각한 경제현상과 30년대의 大恐慌을 이론적으로 해석함에 있어서 참패를 당했던 코렉은 수지하다시피 경제학을 버리고 社會哲學으로 방향을 바꾸었는데 요사이 연구논문이 나오기 시작한다。

II

요사이 理論經濟學에 케인즈의 이론은 어떤면에서 보면 過熱의 현재 각한하고 있는것과 같으나 그 공통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뿐이다。그러나 이상스럽게도 선진 경제학도들에게 당신은 케인즈學派에 속합니까라고 물는다면 그렇다고 답할 사람은 많으나 所得分配面에서나후 생경제적인 면에서 말아 들여지지않고 있다。

케인즈 이론을 계량모형화한 대표적인 이론들이 經濟予測에 失敗하여 후생비용이 상당히 든다。

케인즈의 이론은 계량모형화한 대표적인 이론들이 經濟予測에 失敗하여 경제학계에 결친 경제적 자원의 낭비를 비판하는 점에서는 공감이 가지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에서 Radical과 대립되는 것으로 본다。정부의 보수주의자들은 불황속의 민간부문을 부정할수없을까?

西歐社會의 생산력 그자체 즉 供給力으로서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 말인가? 生産力이 충분한데도 구매력의 감소로 인한 有効需要의 결핍은 생산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기때문에 이로 인한 실업의 문제는 근대국가가 해결해야할 第1義的인 문제인데 과연 保守主義者들의 처방은 어떠한 것인가? 앞에서 언급한것처럼 가격機構에 의한 해결방법보다는 貨幣政策의 복안이 없다는 것이다。이번 美下院에 제출된 레이건의 예산은 후생비의대폭적인 삭감과 租稅의 후생비삭감은 도저히 용납할수가 없다。왜냐하면 복지비를 늘리면서 자원의 낭비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현재 향상 즉 자원의 효율화에 더 역점을 두는것이 그들의 본래의 의지일 것이다。

그러면 인플레이션문제로 돌아가자。미국에서 70년대 中期 한창 가격이 현저하게 오를때 부분경기순환-소에서는 가격상승의 요인을 추적하였는데 原油価 상승이 물가상승에 미친 영향은 7%에 불과하고 나머지 앞서 였는 요인이 10%였다。그 당시 일본의 복잡한 기관에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근원을 물가지 추적하였는데 케, 미국의 금융제불이 직접의 개인의 이었다。이번에 보고는 폭적인 사실 이었다。원유가 상승으로부터 된 세계경제질서의 파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갖춘 완전한 고용이란 이론적 기업가의 기능인 사수한 기업을 유한 租稅의 조작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누구나 경험을 가졌겠지만 經濟理論논쟁에서 미국의 캠브리지를 중심한 학파는 英國의 캠브리지를 학파에비하여 數的으로는 우세하였지만 이론전개에서는 항상 英國의 학파에 뒤졌고 자신이를 'summing-up'에서 사무엘슨의 솔직한 告白은 많은 암시를 주고있다。

그러나 대학원 세미나실에서의 미국학생들의 태도는 사무엘슨의 솔직한 고백에도 불구하고케인즈 이론을 이유없이 백안시하려는 태도들은 납득할수가없다。이러한 이유없는 반발의 기질도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간주된다。상기의 미국경제의현실에대한 고찰과 그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공정적인 면에서 봉건복근을 옹호한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부될지도 모르는 미국의 新氣風의 방향을 이론적으로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Hayek의 말했은 옳다나 지속 될것인가?아무리 금융정으로 생각하도 4년이상은 지속되지 못할것같다。

IV

마지막으로 현존하는 F. Hayek는 年前에 韓國經濟人 聯合會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그의 主張은무엇이였나?요약 無賃格의 한국 기업가를에게 송깃한 提言을했는가? 한국은 美國과의 特殊한 관계에있기때문에 저기서 發生하는 조류나思想은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없지않다한데 自身의 興件을 省察하면서 우왕좌왕해서는 안되며 이를을 바탕으로 한 경제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立場이다。왜 매스콤이 흥분을 하려는 側들도 있을것이다。왜 매스콤이 흥분을 하지 아해할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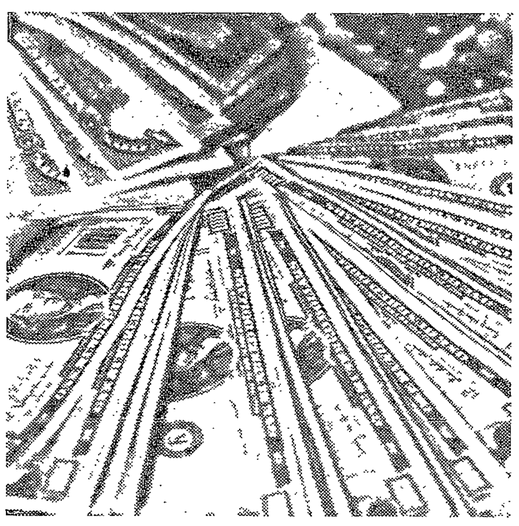
政策意志가 정확한 이론적 뒷받침이없이 저돌적일때 그결과는 참담한것이다。여기서 한국經濟의 현실문제를 다시 끄집어 내는것은 기회가 아니여서 언급을 회피하겠다만 우리의 盟邦이라 저기에서 발생하는 후생비의 대폭적인 삭감과 租稅의 후생비삭감은 도저히 용납할수가 없다。복지비를 늘리면서 자원의 낭비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현재 향상 즉 자원의 효율화에 더 역점을 두는것이 그들의 본래의 의지일 것이다。

그러면 인플레이션문제로 돌아가자。미국에서 70년대 中期 한창 가격이 현저하게 오를때 부분경기순환-소에서는 가격상승의 요인을 추적하였는데 原油価 상승이 물가상승에 미친 영향은 7%에 불과하고 나머지 앞서 였는 요인이 10%였다。그 당시 일본의 복잡한 기관에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근원을 물가지 추적하였는데 케, 미국의 금융제불이 직접의 개인의 이었다。이번에 보고는 폭적인 사실 이었다。원유가 상승으로부터 된 세계경제질서의 파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갖춘 완전한 고용이란 이론적 기업가의 기능인 사수한 기업을 유한 租稅의 조작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누구나 경험을 가졌겠지만 經濟理論논쟁에서 미국의 캠브리지를 중심한 학파는 英國의 캠브리지를 학파에비하여 數的으로는 우세하였지만 이론전개에서는 항상 英國의 학파에 뒤졌고 자신이를 'summing-up'에서 사무엘슨의 솔직한 告白은 많은 암시를 주고있다。

그러나 대학원 세미나실에서의 미국학생들의 태도는 사무엘슨의 솔직한 고백에도 불구하고케인즈 이론을 이유없이 백안시하려는 태도들은납득할수가없다。이러한 이유없는 반발의 기질도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간주된다。상기의 미국경제의현실에대한 고찰과 그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공정적인 면에서 봉건복근을 옹호한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부될지도 모르는 미국의 新氣風의 방향을 이론적으로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Hayek의 말했은 옳다나 지속 될것인가?아무리 금융정으로 생각하도 4년이상은 지속되지 못할것같다。



◇공급측면학을 기반으로 정립된 레이거노미스는 큰실한 실험결과를 현재 미국경제에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레이건 經濟政策은 世界經濟질서 파괴로 스태그플레이션 再分配 고려해야 生産性 높아져

표현 강해

그렇다면 유효수요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수 있단 말인가? Say의 법칙을 인정하자는 말인가?

國際的인 생산성의 비교연구에서 고찰할때, 미국경제의 強点은 노동의 생산성에 있다。他의 추종을 불허하는 独歩的인 높은 노동의 생산성은 후진국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미국의 국경제가 계속 생산성을 維持하려면이 부분에 종점 집중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겠다。자본의 생산성면에선 日本이나, 西歐經済가 오히려 약간 上昇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랜기간 자본의 深化로 다적인 미국경제에서 철저한 산업의 再編을 강행하지않으면 자본의 생산성은 기대하기가 어렵다。이러한 경제여건하에서 保守主義者의 경제시책이 어느정도의 결과를 불었을것가는 明若觀火한 사실이다。

기술발전이론및 성장이론에서 노동의 생산성은 이론으로 파급하기 용이할뿐만 아니라 성장의 안정성에 불가결한 요소이며 거시적 효과분석에서 필수적인 자립을 굳이 설명할것도 없다。

그렇다면 기업에 활력소를 불어넣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은 과연 理論을 비난을 받고있는데 과연 理論을 탓할것인가? 어떻게 보면 常識以下의 主張들로 하는데 나는 이것을 亡靈이라고 부르고싶다。

금세기 초기에 발생한 經濟現像을 해석함에 있어서 케인즈와 프리드먼은 대표적인 兩巨頭로서 일찍대전후의 실각한 경제현상과 30년대의 大恐慌을 이론적으로 해석함에 있어서 참패를 당했던 코렉은 수지하다시피 경제학을 버리고 社會哲學으로 방향을 바꾸었는데 요사이 연구논문이 나오기 시작한다。

III

資本主義가 성숙됨에 따라 生産力을 背後에 업고 独占기업으로 世界經済를 주름잡던 先進經済는 그자신의 生産力을 維持하기 위한 이론적 뒷받침에 대하여 절실히 부하하였는데 케인즈의 理論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나타난 것이다。Keynes의 경제이론 時代에 적합했던 것으로 보고있다。그의 유명한 著書 「The Road to Serfdom」은 일찍나 케인즈理論의 정책적 결과를 묵시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Keynes의 경제이론은 단순히 경기변동을 다루는 景気循環論이 아니라 經済力拡大를 위한 政府의 經済政策立案者를 위한 指針書이기도 하다。

케인즈의 이론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점을 企業을 육성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出生順位와 人性形成과의 상관관계

愛蓮 洪

I、머릿말

최근 人性(Personality)研究에 있어서 人性이 전천적으로 결정되는지 후천적으로 즉, 環境的인 영향에 의해서 形成되는지 하는 점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性格形成에 있어서 유전의 역할을 부정할수는 없으나, 많은 學者가 後天的인 環境의 영향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다른 사람과의 초절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個体의 모든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특성의 통합된 조직』이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人性의 형성에 있어 주위환경으로 작용하게될 가정의 영향에 관하여, Ausubel은 『가정의 영향성에 종속하다. 그중에도 특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들의 태도, 자녀들에의 역할에 따를 태도나 기대가 다름으로써 장자, 중간자, 말자 독자사이에는 현저한 성격차가 생긴다는 고 하였다. 개인이 각 가정에서 차지하는 순위가 다름으로써 부모의 역할 기대가 달라지고 이러한 외부에서의 역할기대는 개인의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듯 출생순위에 따라 한 가정내에서 지위나 역할이 달라지고 각 축구성원간에 작용력이 달라짐으로써 개개인의 人性特性이 다르게 형성되리라고 생각이 되어, 여기서는부모들의 서열에 따른 부모의 養育態度와 책임감의 강약과, 과학적 분석에서 탁월한 성취적 경향을 나타내는 출생순위에 따라 한 가정의 부모의 돌봄이에 대한 養育態度는 경험으로 인해 보다 일관성있고 비교적 안정적이다. 맏자녀는 동생의 출생이 첫아이는 의존적이며 불안감이 많은 반면 독립적이고 협조적이며 어린이다운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다. 그 까닭은 어린이가 그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이동기를 통해하는 첫기회를 얻게된다고 하였다. 첫아이는 社會化의 파정이 빠르고 사회압력에 약한 편이며, 責任感이 강하며 權威에대해서 공경적이다. 정서적으로는 應情的

◇人性연구에 있어서 性格形成이 후천적, 즉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크게 좌우될수있다는데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II、父母의 養育態度와 人性의 形成

자녀편에서는 부모란 최초로 갖게되는 사회적 경험과 동일화의 대상이며 또한 참조의 모범일 수 있다.

이 점에서 양육태도는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중요성을 나타낸다. Sears 는 『어린이 人性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의 모든 행동은 그가 어떻게 지워졌나하는 부모의 양육방법의 결과라고 지적하고있다.

부모가 아동의 人性에 미치는 영향을Hurlock 와 Symonds의분류에 점을 두어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父母의 포부와 야심(Parental Aspiration & Ambition)-부모가 자녀들에게 자신이 이루지 못한 希望을 補償的으로 기대하거나, 자녀에대한 지나친 푸루기 잘하고 순종하지 않으며, 무책임한 어린이가되게한다.

2、부모의 과잉보호적 態度(Parprotection)-어린이를 지나치게 감독하여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들 자신의 독립심을 저하하며, 어린이는 또한 홍분, 수줍음, 불안감, 초조감 집중력의 결핍등 신경질적인 발동을나타낸다.

3、父母의 愛容的 態度 愛容的인 父母는 정서적으로 정숙된 부모로서,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어린이는 極히 順調롭고 원만하고 협동적이며 친절하고 충성심이 있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4、父母의 거부적 態度 거부적 태도란 어린이를 있어서 태연하거나 돈하거나 어린이 등의 成長發達에는 관계없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거나, 어린이에 대한 적대감의 표시를 나타내는 등, 어린이들에게 反社會的인 행동을 초래한다.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 편에서는 부모란, 사회와의 최우선적 태도(Dominating Parent)

지배적 태도는 부모의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愛容가 함께 복합되는이 경우 어린이들은 정적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전 자신감을잃게 된다.

위에서 본 전체를 子女의 人性과 行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자녀들에 대한 역할기대는 지닌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며, 따라서 그 지위에 따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람과 愛容가 함께 복합되는이 경우 적절한 부모의 관건과 사랑을 받아왔고, 또 받고있는 경험의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의 人性이 형성된다.

III、出生順位와 人性特性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각 개인이 가정에서 차지하는 位置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르므로 인해 출생순위에 따라 人性特性은 相當히 다르게 형성된다는 Adler의 견해인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있다.

Adler는 경쟁심을 키우고 적대적인 태도형성에 있어서 형제간의 경쟁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나보다 우월하려고 하는 노력 즉, 우월을 해보려는 의지의 힘이 인격형성의 중요한 동기이며, 어릴때의 우월한 힘, 지혜 앞에서 부력함을 느끼면서 어린이가 그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이동기를 통해하는 첫기회를 얻게된다고 하였다. 첫아이는 社會化의 파정이 빠르고 사회압력에 약한 편이며, 責任感이 강하며 權威에대해서 공경적이다. 정서적으로는 應情的 양육태도를 다르게 할수 있으며, 아동의 人性發達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는 것이 自己의 性格을 이해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수 있으나 여기에서 간과할수없는 것은 사람의 性格에영향을 주는 要因은 出生順位의외에도 무수히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性格이 出生順位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확고한 결론을 내릴수는 없다.

에를들면 Shoonover는 Murphy 같은 학자는 出生順位가 人性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오히려 兒童이 자기자신이 認定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지의 여부가, 그리고 兩親과 자녀와의 정서적 관계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확복한 가정의 분위기나 父母의 균등한 사랑은 全人을 형성하는데 필수요소이자 人性의 결함을 보완하는데 꼭 필요한 것임을 지적하며, 이글을 맺고자 한다.

〈大學院 家政學〉

IV、맺음말

가정은 아동의 욕구불족의 장소이고, 동시에 아동에게 사회의 문화를 전달하여 人性(personality)을 형성케 하는데 참여하는 최초의 학교장소이다. 또한 아동에게는 정을의 장소이고 가장 친밀한 정서적 유대속에서 정감을 배우는 사회의 출발점이다. 여기에서 출생순위와 가족내의 지위는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를 다르게 할수 있으며, 아동의 人性發達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는 것이 自己의 性格을 이해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수 있으나 여기에서 간과할수없는 것은 사람의 性格에영향을 주는 要因은 出生順位의외에도 무수히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性格이 出生順位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확고한 결론을 내릴수는 없다.

에를들면 Shoonover는 Murphy 같은 학자는 出生順位가 人性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오히려 兒童이 자기자신이 認定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지의 여부가, 그리고 兩親과 자녀와의 정서적 관계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확복한 가정의 분위기나 父母의 균등한 사랑은 全人을 형성하는데 필수요소이자 人性의 결함을 보완하는데 꼭 필요한 것임을 지적하며, 이글을 맺고자 한다.

〈大學院 家政學〉

人性은 個人특성 종합적 표현

출생서열에 따라 役割期待 달라져

첫 아이는 權威的, 責任感 강해

◇人性연구에 있어서 性格形成이 후천적, 즉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크게 좌우될수있다는데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II、父母의 養育態度와 人性의 形成

자녀편에서는 부모란 최초로 갖게되는 사회적 경험과 동일화의 대상이며 또한 참조의 모범일 수 있다.

이 점에서 양육태도는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중요성을 나타낸다. Sears 는 『어린이 人性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의 모든 행동은 그가 어떻게 지워졌나하는 부모의 양육방법의 결과라고 지적하고있다.

부모가 아동의 人性에 미치는 영향을Hurlock 와 Symonds의분류에 점을 두어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父母의 포부와 야심(Parental Aspiration & Ambition)-부모가 자녀들에게 자신이 이루지 못한 希望을 補償的으로 기대하거나, 자녀에대한 지나친 푸루기 잘하고 순종하지 않으며, 무책임한 어린이가되게한다.

2、부모의 과잉보호적 態度(Parprotection)-어린이를 지나치게 감독하여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들 자신의 독립심을 저하하며, 어린이는 또한 홍분, 수줍음, 불안감, 초조감 집중력의 결핍등 신경질적인 발동을나타낸다.

3、父母의 愛容的 態度 愛容的인 父母는 정서적으로 정숙된 부모로서,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어린이는 極히 順調롭고 원만하고 협동적이며 친절하고 충성심이 있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4、父母의 거부적 態度 거부적 태도란 어린이를 있어서 태연하거나 돈하거나 어린이 등의 成長發達에는 관계없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거나, 어린이에 대한 적대감의 표시를 나타내는 등, 어린이들에게 反社會的인 행동을 초래한다.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 편에서는 부모란, 사회와의 최우선적 태도(Dominating Parent)

지배적 태도는 부모의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愛容가 함께 복합되는이 경우 어린이들은 정적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전 자신감을잃게 된다.

위에서 본 전체를 子女의 人性과 行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자녀들에 대한 역할기대는 지닌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며, 따라서 그 지위에 따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람과 愛容가 함께 복합되는이 경우 적절한 부모의 관건과 사랑을 받아왔고, 또 받고있는 경험의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의 人性이 형성된다.

III、出生順位와 人性特性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각 개인이 가정에서 차지하는 位置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르므로 인해 출생순위에 따라 人性特性은 相當히 다르게 형성된다는 Adler의 견해인데 중요한 영향을미친다고 볼 수있다.

Adler는 경쟁심을 키우고 적대적인 태도형성에 있어서 형제간의 경쟁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나보다 우월하려고 하는 노력 즉, 우월을 해보려는 의지의 힘이 인격형성의 중요한 동기이며, 어릴때의 우월한 힘, 지혜 앞에서 부력함을 느끼면서 어린이가 그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이동기를 통해하는 첫기회를 얻게된다고 하였다. 첫아이는 社會化의 파정이 빠르고 사회압력에 약한 편이며, 責任感이 강하며 權威에대해서 공경적이다. 정서적으로는 應情的 양육태도를 다르게 할수 있으며, 아동의 人性發達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는 것이 自己의 性格을 이해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수 있으나 여기에서 간과할수없는 것은 사람의 性格에영향을 주는 要因은 出生順位의외에도 무수히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性格이 出生順位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확고한 결론을 내릴수는 없다.

에를들면 Shoonover는 Murphy 같은 학자는 出生順位가 人性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오히려 兒童이 자기자신이 認定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지의 여부가, 그리고 兩親과 자녀와의 정서적 관계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확복한 가정의 분위기나 父母의 균등한 사랑은 全人을 형성하는데 필수요소이자 人性의 결함을 보완하는데 꼭 필요한 것임을 지적하며, 이글을 맺고자 한다.

〈大學院 家政學〉

IV、맺음말

가정은 아동의 욕구불족의 장소이고, 동시에 아동에게 사회의 문화를 전달하여 人性(personality)을 형성케 하는데 참여하는 최초의 학교장소이다. 또한 아동에게는 정을의 장소이고 가장 친밀한 정서적 유대속에서 정감을 배우는 사회의 출발점이다. 여기에서 출생순위와 가족내의 지위는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를 다르게 할수 있으며, 아동의 人性發達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는 것이 自己의 性格을 이해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수 있으나 여기에서 간과할수없는 것은 사람의 性格에영향을 주는 要因은 出生順位의외에도 무수히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性格이 出生順位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확고한 결론을 내릴수는 없다.

에를들면 Shoonover는 Murphy 같은 학자는 出生順位가 人性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오히려 兒童이 자기자신이 認定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지의 여부가, 그리고 兩親과 자녀와의 정서적 관계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확복한 가정의 분위기나 父母의 균등한 사랑은 全人을 형성하는데 필수요소이자 人性의 결함을 보완하는데 꼭 필요한 것임을 지적하며, 이글을 맺고자 한다.

〈大學院 家政學〉

화목, 편애없는 사랑…全人格형성의 필수요소

遺傳工學의 定義

遺伝工學이란 學問的으로는 생물의 細胞내에 있는, 또는 人爲的으로 만들어진 遺伝子나, 遺伝物質(DNA, RNA)을 조작하여 보다 쓸모있는 生命体로 바꾸거나 만드는 것이며, 산업적으로는 조작된 생명체로부터 인간이 필요로하는 有用한 物質을 생산해 내는것을 말한다.

□遺傳工學의 네가지 주요 技術

유전자 操作=生物의 모양과 特性, 수명등을 결정짓고, 자손에대로 같은 形質을 물려주는 설계도와 같은 것이 遺伝子인데, 이것의 한 유전자 단위는 길이로 10만분의 1㎝, 무게로는 10조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遺伝工學의 기본이 되는 이 遺伝子操作은 바로 작고 많은 유전정보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떼어내 다른 生物의 유전자에 삽입시켜 새로운 유전능력을 갖는 정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유전자의 切斷과 삽입에는 특정한 酵素를 사용한다. 유전공학 산업제품인 美國의 제넨테크社는 이렇게하여 현재까지 당뇨병 치료제인 소마토스타틴과 노보헤온 성장호르몬을 成長호르몬과 흡전호르몬과 알파 I 그리고 癌細胞 정장억제효과가 있는 단백질 면역 인터페론등을 생산하고 있다.

細胞 融合 (Cell fusion)=異種의 細胞를 둘러싸고 있는 膜을 효소로 용해시킨후 세포의 原形質을 하나로 접합하여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것이다. 精子와 卵細胞는 본래 融合(수정) 하는 성질을 갖고 있으나 융합능력이없는 体細胞의 人工的인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것이 세포 융합이다. 토마토와 포테이토의 세포 융합으로 地上部는토마토가 지하부는 감자가 달리는 포마토(Pomato)를 만든것으로부터 다목적 生産形質을 갖는 生物体를 출현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실용화에는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만 한다.

核 또는 細胞器官의 置換=細胞의 核 또는 세포기관을 바꾸어 새로운生物体를 복제 또는 창조하는 기술이다. 体細胞 核을 卵細胞의 핵과 置換하고 같은 개체를 生産할 수 있어 코끼리만한 돼지라든가 復讐人間의 꿈을 꾸게 되었다.

組織 培養=이미 農業에 가장 많이 활用되고 있는 유전공학의 기술로 식물의 일부분을 떼어서 人類가 당면한 식량문제에서 에너지와 환경오염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유전공학을 이용해 옥수수에서 알콜을 생산을 높인 것은 벌써 공정상으로 성공했으며 영유소로 돌말 발효로 알콜을 생산해 내는 것도 연구 중이다.

□응용분야

이제 막 태동되고 있는 유전공학의 무한한 자원은 人類가 당면한 제각각 에너지와 환경오염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유전공학을 이용해 옥수수에서 알콜을 생산을 높인 것은 벌써 공정상으로 성공했으며 영유소로 돌말 발효로 알콜을 생산해 내는 것도 연구 중이다.

유전자 조작, 有用한 物體로 갱생

금세기 최대의 産業으로 評價돼

인간의 尊嚴性이 무시될 위험도

마토를 질량적으로 만들어 내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대학교의 농업연구소에서는 박한달 옥수수를,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밀랜 (W. Brill) 은 프랑스 물송인 녹색종의 유전형질을 해바라기종 세포에 이식하여 해바라기종(Sunbean)을 실험적으로 만들어 내었다.

이상의 연구 진행의 결과에서 유전공학의 산물중 이미 실용화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실용화될 수 있는 것도 있으나 유전공학의 잠재능력이 無限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遺傳工學의 定義

遺伝工學이란 學問的으로는 생물의 細胞내에 있는, 또는 人爲的으로 만들어진 遺伝子나, 遺伝物質(DNA, RNA)을 조작하여 보다 쓸모있는 生命体로 바꾸거나 만드는 것이며, 산업적으로는 조작된 생명체로부터 인간이 필요로하는 有用한 物質을 생산해 내는것을 말한다.

□遺傳工學의 네가지 주요 技術

유전자 操作=生物의 모양과 特性, 수명등을 결정짓고, 자손에대로 같은 形質을 물려주는 설계도와 같은 것이 遺伝子인데, 이것의 한 유전자 단위는 길이로 10만분의 1㎝, 무게로는 10조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遺伝工學의 기본이 되는 이 遺伝子操作은 바로 작고 많은 유전정보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떼어내 다른 生物의 유전자에 삽입시켜 새로운 유전능력을 갖는 정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유전자의 切斷과 삽입에는 특정한 酵素를 사용한다. 유전공학 산업제품인 美國의 제넨테크社는 이렇게하여 현재까지 당뇨병 치료제인 소마토스타틴과 노보헤온 성장호르몬과 알파 I 그리고 癌細胞 정장억제효과가 있는 단백질 면역 인터페론등을 생산하고 있다.

細胞 融合 (Cell fusion)=異種의 細胞를 둘러싸고 있는 膜을 효소로 용해시킨후 세포의 原形質을 하나로 접합하여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것이다. 精子와 卵細胞는 본래 融合(수정) 하는 성질을 갖고 있으나 융합능력이없는 体細胞의 人工的인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것이 세포 융합이다. 토마토와 포테이토의 세포 융합으로 地上部는토마토가 지하부는 감자가 달리는 포마토(Pomato)를 만든것으로부터 다목적 生産形質을 갖는 生物体를 출현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실용화에는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만 한다.

核 또는 細胞器官의 置換=細胞의 核 또는 세포기관을 바꾸어 새로운生物体를 복제 또는 창조하는 기술이다. 体細胞 核을 卵細胞의 핵과 置換하고 같은 개체를 生産할 수 있어 코끼리만한 돼지라든가 復讐人間의 꿈을 꾸게 되었다.

組織 培養=이미 農業에 가장 많이 활用되고 있는 유전공학의 기술로 식물의 일부분을 떼어서 人類가 당면한 식량문제에서 에너지와 환경오염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유전공학을 이용해 옥수수에서 알콜을 생산을 높인 것은 벌써 공정상으로 성공했으며 영유소로 돌말 발효로 알콜을 생산해 내는 것도 연구 중이다.

□研究의 進行과정

1953년 미국 솔크(Salk) 연구소의 유전학자 와트슨과 크리크 (J. D. Watson & F.C. Crick) 박사가 DNA의 구조를 밝힘.

1970년 미국MIT대학의 노라나 (H.G. Knorana) 교수가 DNA합성.

1972년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버그(Paul Berg) 박사가 유전자를 서로 결합하는 기술개발에 성공.

1973년 일본 교토대학 타넴와기 교수가 제포내에있는 염색체를 절단·제거하는 기술을 개발.

1973년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코헨(S.N. Cohen) 박사가 DNA를 균체에 삽입하는 운반체인 프라스미드 (Plasmid)를 개발.

1977~1980年 DNA操作으로 미생물에서 의약품으로 使用할 수 있는 호르몬및 인터페론 生産 成功.

1981年1月 스위스의 제네바대학 칼·이르네지 (Karl Irmegy) 교수가 쥐의 体세포핵을 닭의 核과 치환하여 복갈은 복제 쥐를 생산하는데 성공.

1918年7月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버클레이 교수가 細胞에서 反투膜性 (반한발성) 遺伝因子 추출에 성공하고 동시에 바다에서 토마토를 재배할수 있게 耐塩因子를 찾아 내는데 성공했다고 발표.

1981년 8월 日本 國立遺伝研究所·이토 마태웅 박사팀이 식물의 体세포에서 생장점을 분리하여 시험관에서 배양, 식물체로 재생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

鹿野苑

▲우리나라는 옛부터 東方禮儀之國이라고 불리워 왔다. 이러한 명예는 특히 朝鮮時代에 있어 예의범절을 숭상해 온 儒教의 영향을 받아 더욱 발전하였으며 유교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행동양식을 결정할 수 있는 규범이 되었다. 당시 사람들의 행동양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유교는 보는 관점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朝鮮時代의 유교는 과연 지배체제의 지지와 피지배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였는가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학을 찾아보면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문귀가 적혀 있다. 이 말은 「자기자신을 수련한 후에 가정을 보살피고 나라를 다스려 천하를 평안히 하라」는 뜻으로 現實과 理想的인 정치원리를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노동문제를 資本家의 논점에 의한 자발적인 노동조건의 개선으로 해결하거나 미연에 방지하려는 溫情主義와 흡사한 것으로 修身후에 齊家하고 治國하며 平天下한다는 것은 「仁德支配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修身후의 齊家에 한정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平天下가 政治參與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修身의 정도 측정도 문제가 되며 그 정도를 판단하는 경로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것도 애매해 지는 것이다. ▲과거본만아니라 세상일이 복잡다난하여진 現今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들이 民主主義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주의 발전을 욕바른 정치제도의 확립에 그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설정이다. 또한 올바른 政治란 다수 大衆의 政治參與로 정책에 民意가 다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미루어 생각해 볼 때 많은 부당연히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야만한 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 예전하고 있다.

□맺음말

現代文明에 의해서 창조되는 정을을 마치 원자탄의 발전으로 인간이 복지를 누리는 대신에 원자탄이 유일적을발전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유일적을재하고 있다. 정을을재해하고 불리우는이 것은 유전공학 연구결과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나, 현대 유전공학의 연구가 계속 진행되면 될수록 이러한 정을을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유전공학의 연구는 독자의 열등성을 강화하여 이기적일수 있으며 자기중심적이 아니라면 깊이 상처받는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개 부모의 양육태도 속에 의해 폐위당하는 경향이 없다. 첫아이가 대개 부모의 총애를 받아왔고, 또 받고있는 경험의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의 人性이 형성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보다 우수하고 효과적인 物質만을 만들어내는 연구가 정착하면, 나쁜 유전자는 모두 없애고 우수한 유전자로 대치해야 한다는 發想이 나올테고 이는 수십억년동안 자연도태와 淘汰生存에 의해 現存, 유지되어온 生態系의 질서를 교란할 위험이 있다.

유전공학의 기계분류에 의한 자연환경의 파괴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인류의 장래를 위협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5차 5개년계획의 중점사업의 하나로 현재 유전자 조작 실험에 관한 안전 지침이 제정 실시되고 있다.

벌써 선진국에서는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취급되어지는 유전공학의 본격적으로 실용화되기에는 10년, 길어도 20년이면 경제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5차 5개년계획의 중점사업의 하나로 현재 유전자 조작 실험에 관한 안전성 대책을 강구한 후 실험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며 현재 유전자 조작 실험에 관한 안전 지침이 제정 실시되고 있다.

끝으로 인류의 장래와 직결 달려있는 유전공학의 연구는 독자의 열등성을 강화하여 人性(personality)을 형성케 하는데 참여하는 최초의 학교장소이다. 또한 아동에게는 정을의 장소이고 가장 친밀한 정서적 유대속에서 정감을 배우는 사회의 출발점이다. 여기에서 출생순위와 가족내의 지위는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를 다르게 할수 있으며, 아동의 人性發達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는 것이 自己의 性格을 이해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수 있으나 여기에서 간과할수없는 것은 사람의 性格에영향을 주는 要因은 出生順位의외에도 무수히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性格이 出生順位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확고한 결론을 내릴수는 없다.

에를들면 Shoonover는 Murphy 같은 학자는 出生順位가 人性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오히려 兒童이 자기자신이 認定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지의 여부가, 그리고 兩親과 자녀와의 정서적 관계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확복한 가정의 분위기나 父母의 균등한 사랑은 全人을 형성하는데 필수요소이자 人性의 결함을 보완하는데 꼭 필요한 것임을 지적하며, 이글을 맺고자 한다.

〈大學院 家政學〉

우량면제품표시
대한방직협회
● BUFFALO골덴·우단·데님은 純綿 제품입니다

골덴·우단·데님
FREE YOUNG
FASHION 창조를
위한 활동복지-BUFFALO

청바지하면 누구나 알지만
원단을 만드는 회사는 모릅니다.

대리점에 가셔서 가장 좋은 청바지 원단을 원하면 태창기업(주)의 Buffalo를 선뜻 권합니다. Buffalo는 태창기업의 골덴·우단·데님의 브랜드로서 원단뿐 아니라 봉제가공되어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 수출되고 있으며 국내 유명 브랜드의 패션복도 모두 Buffalo원단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30년동안 면직물만을 생산해온 태창기업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젊은이를 위한 활동복지 Buffalo는 후리 패션창조의 최적복지임을 자부합니다. 젊은 당신의 새로운멋, 서구스타일의 활동적인 멋을 Buffalo로 꾸미십시오.

Buffalo

泰昌企業株式會社
TAECHANG-ENTERPRISE CO.,LTD.

제20회 全國男女高校文學 콩쿠르

小說部 장원

病室

나는 잠에서 깨다. 치익치익, 스팀소리가 들려왔다. 금방 잠에서 깨어서 그런지 병실안은 안개가 끼인듯 흐려보였다. 그리고 조용했다. 조춘(早春)의 화사한 햇살이 병실 가득 찰랑거렸고 그윽로 안개같은 조용함이 부유하고 있었다. 나는 천대에서 일어나 시계를 보았다. 시계는 아직도 오전에 머물러 있었다. 아니 그 시계에 고여있는 나른한 시간들. 나는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견뎌해야 할지 걱정스러웠다. 이럴때 시간은 마치 홍수로 불어난 강과 같았다.

내 앞에 토도히 흐르며 날카로운 초점 소리를 물결마냥 찰랑이며 나를 낚갑하게 하는 것이 텐덱, 넉전 그 시간의 광활함을 건널 아무런 도구도 없는것이다. 그저 나태와 잉여의 잔물결에 발을 달그고 있을 수밖에 없다.

어느새 시야는 안개가 걷혀버린듯 깨끗해져 있었다. 하얀 병실벽이 햇살에 속절없이 알몸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주전자를 찾아 꼭지에 입을 대고 벌컥벌컥 퉁이켰다. 그리고 저절게 그 것을 내려놓았다. 그 바람에 쟁반 옆에 놓여있던 약봉지가 북 떨어졌다. 아이나. 파스등 제법 비싼 약들이었다. 나는 그 것을 줍기 위해 병실바닥으로 고개를 숙였다. 순간 나는 내 가슴 속에서 수십 장의 유리 접시가 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병실 바닥에는 빨간 알약이 흑사 점점이 떨어진 꼬방울처럼 섬짓하게 나뒹굴고 있었던 거였다.

나는 그 약을 다시 줍기가두려웠다. 저 약을 먹으면 내 병결핵이 되려 도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전에 겪던 느낌이었다. 그러고 보니 병실벽에 대한 느낌도 전같지가 않았다.

입원 당시에는 그 희디흰 벽이 아름답다고 느껴졌었더랬다. 그래서 나는 저 벽에 한 폭의 아름다운 벽화를 남기고 싶었었다. 비록 내 그림 실력은 없지만 저 벽의 흰색깔이 내가 그릴 그림을 불멸의 명화로 남겨줄것 같았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저 벽이 점점 좁아져 나를 짓눌러 버릴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가끔씩 저 벽을 허물어 버리고 싶은 충동을 받는 것이다. 정말 모를 일이었다.

나는 세차게 머리를 흔들며 창변에 붙어섰다. 광, 광, 광. 정구치는 소리가 가깝게 들려왔다. 병실 창으로는 정구장이 환히 내다 보였다.

『오후엔 미스 박이 주사할 거예요.』

나는 완벽히 녹슬어 있었고 초라했었다. 나는 삶수챙이였으니까. 나는 전혀 사랑스럽지 못한 삶수챙이였으니까.

『이놈아, 너놈 때문에 요새 이얘 비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놈아 알어?』

아버지는 항시 그렇게말했다. 나 때문에 동료 사장들에게도창

피하고 사원들에게도 창피하다는 것였다. 나는 그런말을 들을 때마다 우울했다. 보이는 모든 것이 틀리는 모든것이 우울했다. 그리고 나는 하릉에 식달했다. 대학이, 아버지의 체면이, 입시가 내게 달려들어 튼튼한 오랏줄로 나를 꽁꽁 묶어버리는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한 발짝에 비명을 지르며 결국 전쟁터 부상병처럼 병실 안에서

제20회 全國男女高校文學 콩쿠르

隨筆部 장원

꿈

오 선 흥

꿈은, 꿈을 꾸는 그 자체만으로도 찬란하게 빛을 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꿈으로 하여 신선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고, 실의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아무리 어둠은 과다이 찾아오더라도 마침내 그것을 헤어날 수가 있다.

꿈을 꾸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세상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영원한 기쁨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이리라. 그는 언제나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나갈 수 있다.

만일 우리에게 꿈이란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우울한 일이다. 꿈이 사라지게 되는 날, 그것은 곧 우리들 최후의 날이다. 아니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가슴에는 꿈이 흐르고 있을 것이다.

꿈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들 세상은 그토록 아름다워질수 있으며 또 슬픔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다.

꿈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멀어질수 없는 한 부분이다. 가만히 눈을 감고 창밖을 향해 귀를 기울이면, 멀리로 꿈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듯 하다.

밤이 내려앉은 거리는 꿈의 세계로 향한 문틈새로 살며시 눈동자를 사르면서 새로운 나만의 세계를 사색하는 것도 멀리로 들려오는 행인의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나만의 세계로 향한 문틈새로 살며시 눈동자를 사르면서 새로운 나만의 세계를 사색하는 것도 멀리로 들려오는 행인의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멀리로 꿈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듯 하다.

밤이 내려앉은 거리는 꿈의 세계로 향한 문틈새로 살며시 눈동자를 사르면서 새로운 나만의 세계를 사색하는 것도 멀리로 들려오는 행인의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멀리로 꿈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듯 하다.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고 회상의 날개를 펼쳐본다. 지나간 순간 순간들을 어렴풋이 보면서 가슴깊이 꿈이 있었던지 아닌지 아쉬움만이 가득 고이고, 무색으로 정녕 나에게 꿈이 있었던가 하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어쩐지 아쉬움만이 가득 고이고, 무의미한 식정이 다가와 더욱가슴을 아프게 한다.

어둠의 그림자는 착잡한 정을 더욱 깊게 엮어매고, 나는도 금씩 슬퍼하였다.

하지만 눈을들어 창 밖을보니벌써 나의 적은 꿈 들이 떠있지 않은가.

슬픔은 하나씩 내게서 사라져가고, 나는 새로 느낀 꿈의 기쁨으로 무한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다. 그리고 꿈은 은연중에 은은한 속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슬픔에 젖어들때면 이제 꿈을 생각하게 된다. 꿈의 손길을 느끼면서 다시한번 꿈의 모습을 더듬는 나에게 사랑이을 배워야겠다.

이제 사랑이 있는 모든것들을 감싸줄수 있는 커다란 사랑을 아겠다.

이 땅에살고 있는 모든것들을 감싸줄수 있는 커다란 사랑을 아겠다.

이 땅에살고 있는 모든것들을 감싸줄수 있는 커다란 사랑을 아겠다.

<경기고 3년> 나 광 수

꿈을 꾸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세상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이리다. 그는 언제나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나갈 수 있다.

詩部 장원

새

오 선 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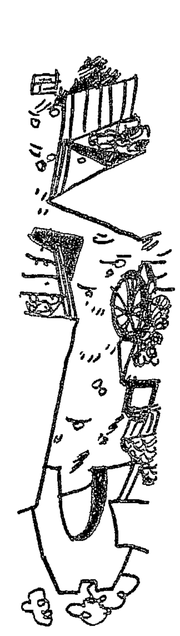
한줄로 구비쳐 흐르는 桓雄의 손금에는
파랑새 하나씩 곱게 겹쳐지고 있다.
살(肉)들이 들아눕는 시간,
가슴은가슴끼리 빈번히 비행하려고,
날개만 퍼득이게 하는 수목들 사이에서
다시금 내가 왔다던 그 산으로
돌아가고있다.
자세하지 못한 몸짓으로 떠나가고 있다.
눈이 멀다는 눈만으로
桓雄의 손금 몇바퀴를 돌아
새는
언젠가 한번은 하늘과 땅과 바다가
서로맞닿아 찬란히 피워 낼 五色 무지개속 파랑새의
그 파란 눈으로 돌아가고 있다.
오늘 또 하루
온난다습한 남풍풍이 눈썹 위에 뿌려지는 시간,
한줄로 구비쳐 흐르는 桓雄의 손금에는
파랑새 하나씩 곱게 겹쳐지고 있다.

<광주고 3년>

詩部 우수1석

새

정 태 상



장터에 나서면, 나는 빛살에 흡뻑 젖어 들아오곤 했다. 빛살은 사람들의 소매깃에 묻어서 한겨울을 나는 것이어서, 사람들이 장터로 나갈때면 그들의 등 뒤로 쫄 서고 있다.

고향 들판에서 자란 수천 그루 햇살은 바람 불면 바람으로 떠나기도 하고, 한타래씩 연줄로 감겨 있기도 한다. 바람이서 산에 질때, 햇살의 어깨 너머로 어둠이들려 와서 우리가 눈 감으면 어둠이 되었다가 눈 뜨면 다시 빛살로흘리고 있다.

마을의 빈터에서 빛살은 저희들 끼리들려 다니고 있지만, 기실은 사람들의 주머니 속에 숨어있는 것이다.

<대구영신고 3년>

詩部 장원

詩的 이미지 아쉬워

"예년에비해 의욕적이고 탁월한 作品많이 보게되니 새삼 즐거워"

徐廷柱 〈詩人·본교명예교수〉

金長好 〈詩人·국교과교수〉

宋 赫 〈詩人·국교과교수〉

시조부 심사평

感有深長한 作品 많아

高校生은 그들대로 마음의 눈 있어

時調의 형식은 詩想의 형식

時調에서의 형식은 표현의 형식이지 詩想의 형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인식해야 하겠다.

이번 時調部에서 느끼는 점은 예년에 비해 量의 低調와 質의 低下를 지적할수 있다. 新春時調나 全國白日場의 경우 해마다 時調人口가 늘고 있는 데 비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예전을 거쳐 본전작품에서 지적할수 있는 것은 형식과 시상의 조화라 하겠다. 시조를 쉽게 쓰고자하는 경향은 시상이 형식을 따르지 못한 탓으로 시상이 형식을 따르지 못한 탓으로 시상이 형식을 따르지 못한 탓으로

第825號 1955年10月13日 第3種郵便物認可 <우편번호100>

大衆化시대의 大学

오늘의 대학을 진단한다

1. 변질된 本質
2. 획일화된 文化
3. 大學의 言論
4. 大學의 位相
5. 大衆化의 극복

머리말

현대사회는 고도로 발달된 과학문명사회를 이루고 있어 과거 우리의 상상속에서나 이루어졌던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고있다。우주선을 쏘아 올려 달을 정복하고 시험관을 통하여 인공수정한 아이가 태어나는등 현대과학은 못할것이 없을 정도로 발달한 것이다。이러한 문명사회를 이룩할수 있었던 원동력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인류의 오랜 고난의 역사속에서 시련을 딛고 일어선 인간 승리의 결정체라 할수 있다。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구적인 지적능력과 체계있는 종합할능력이 발휘되어 오늘날의 훌륭한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인간의 능력을 발휘할수 있게끔 만든 대학의 역할은 높이 평가하여야만 될 것이다。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학문분야속에서 각기 개성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문적 기초를 확립시켜 주는 기관으로서 대학의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그런데 이구의 중가로 인해 교육열이 상승하고 긴장된 세계정세 속에서 옛부터 내려온 대학 고유의 본질이 변모해 획일화된 대중성화 되어가는것이 과연 올바른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대학의 歷史

1、대학의 기원과 발달

대학의 기원을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카데미아에서 찾고 있으며 동양에서는 중국 주(周)나라의 태학(太學)에서 찾고 있다。그러나 근대적 의미에서의 대학은 12세기의 볼로냐대학과 파리대학에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당시 서양은 기독교문화권이 형성되어 로마가 그 중심을 이루었는데 파리대학의 성립으로 해서 그후 파리는 유럽사회에서의 학문적 중심이 되어 오랫동안 전유럽사회에 대해 커다란 학문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은 파리대학에 유학했던 영국 지성인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영국 최초의 대학으로 프랑스문화를 동경하여 영국인들의 산물이었다고 할수 있다。

2、한국대학의 기원과 발달

우리나라에서도 고대 삼국시대에 태학이 있었으며 조선조에 성균관같은 고등교육기관이 일찍부터 있었으나 참다운 의미의 우나버시티는 정성제국대학으로 발달한 것이다。이러한 문명사회를 이룩할수 있었던 것은 인류의 오랜 고난의 역사속에서 시련을 딛고 일어선 인간 승리의 결정체라 할수 있다。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구적인 지적능력과 체계있는 종합할능력이 발휘되어 오늘날의 훌륭한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인간의 능력을 발휘할수 있게끔 만든 대학의 역할은 높이 평가하여야만 될 것이다。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학문분야속에서 각기 개성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문적 기초를 확립시켜 주는 기관으로서 대학의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그런데 이구의 중가로 인해 교육열이 상승하고 긴장된 세계정세 속에서 옛부터 내려온 대학 고유의 본질이 변모해 획일화된 대중성화 되어가는것이 과연 올바른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대학의 歷史

1、대학의 기원과 발달

대학의 기원을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카데미아에서 찾고 있으며 동양에서는 중국 주(周)나라의 태학(太學)에서 찾고 있다。그러나 근대적 의미에서의 대학은 12세기의 볼로냐대학과 파리대학에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당시 서양은 기독교문화권이 형성되어 로마가 그 중심을 이루었는데 파리대학의 성립으로 해서 그후 파리는 유럽사회에서의 학문적 중심이 되어 오랫동안 전유럽사회에 대해 커다란 학문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은 파리대학에 유학했던 영국 지성인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영국 최초의 대학으로 프랑스문화를 동경하여 영국인들의 산물이었다고 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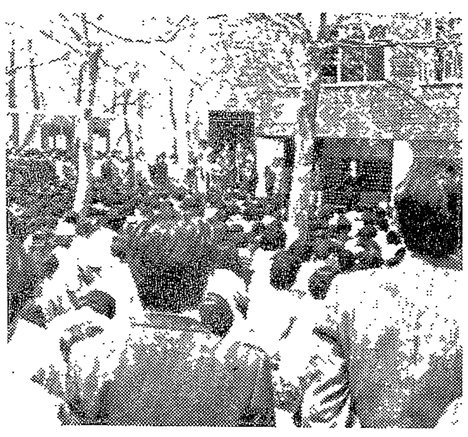
變質된 本質

사회적 變革앞에 무기력해지는 本質

量的증가보다 제도적 大衆化가 일반적 경향

大學본래 의미 되찾아 學問研究 기능 다해야

현실과 理想의 괴리 대화로 克服



▲오늘의 大學은 여러가지 시대적상황의 변천에 따라 구성원 사이에 대화의 단절등 사회번동에 따른 여러가지 諸問題를 안고있다。사진은 다향관 앞에서가졌던 지난80년 총장과의 토론회 광경。

Ⅲ、대학의 意味

대학(University)이란교수와 학생이 자유스럽운 분위기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며 제도적으로 학교체계에 있어서 최고의 교육기관이며 학문연구기관이라 할수 있다。특히 현대사회는 매스컴의 발달로 TV방송 교육기관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식전달기관이 생겨났고 KIST나 국방과학연구원등 여러 연구기관이 보다 질충적인 연구를 통하여 대학보다 앞설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여있지만 오늘날까지 대학이 학문과 진리탐구의 중추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것은 교수와 학생, 연구원들이 일체가 되어 인격자로서 진리를 탐구하고 대학을 통하여 동거적 결합을 모색하는 점이다。본한 대학은 일시적인 욕구, 충족을 위하여 형성된 기관이 아니고 인류가 이룩해 놓은 문화와 유산을 축적 계승하여 나아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는 기관인 것이다。

이와같이 대학이 인류를 위해 공헌을 할수 있었던 것은 대학의 인재양성과 학문연구와 사회봉사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인지양성은 종교등교육이나 초등교육과는 다른것으로 피교육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그 요소로 하여 무비판적인 주입이 아니라 학문의 전수이며 가치 평가적인 전수이다。전인교육을 통해 인격자와 지도자 양성을 목적하고 교양교육을 통하여 학부라정의 전문과목을 보다효율적으로 교육시켜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양성해 준다。

대학이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과 다른 점은 학문연구에 있다。대학은 학문연구를 통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학문을 창조하는 것이다。그런데 이 학문연구는 대학의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이 결합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할때 가장 효과적이라 하겠다。과거 이태리의 볼로냐 대학에서의 로마법연구와 파리대학에서의 신학연구, 등이 뒷날 역사의 커다란 전환기였던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의 기폭제가 된것을 보면 알수 있을 것이다。대중화된 현대대학에서는 강의와 교육부담이 늘어나 연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현대대학의 가장큰 문제점이라고 지적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대학이 대형화되고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에따라 대학의 지나친 봉사는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정부와 교수, 학생간의 의미있는 대화를 통하여 대학이라 할수있는데 전문적인 양성소로 전락되고 예산부족과 교수진부족, 대학의 자율성상실 등의 사례때문에 이상적인 대학정신 커리가 멀어지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학생이 진리탐구보다는 당장 취직을 위하여 전공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병폐인 것이다。더우기 사제간의 대화부족으로 소위 문제학생 지도를 위한 공장장의 형성이 되지 않고, 정부와 대학자의 일방적인 지시행정은 국가·국민에의 봉사와 더불어 국가발전및 사회봉사의 차원에서 인류세계에 공헌하는 연구교육기관이 되도록 하는데 본질이 되지못하는 현상이다。

인구증가에 따른 대학의 대중화현상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학문적 차원과 대학고유의 의미를 유지해야 될 것이다。

Ⅳ、대중화되는 대학

흔히들 우리는 대학의 획일화, 대중화라는 말을 많이 표현한다。이것은 두가지 의미로 해석할수 있다。하나는 양적 대중화라 볼수 있다。인구의 팽창과 교육선호도의 결과로 나타난것이며 즉 학생들이 입구수에 있어서 눈뜨지못이 만연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병폐인 것이다。더우기 사제간의 대화부족으로 소위 문제학생 지도를 위한 공장장의 형성이 되지 않고, 정부와 대학자의 일방적인 지시행정은 국가·국민에의 봉사와 더불어 국가발전및 사회봉사의 차원에서 인류세계에 공헌하는 연구교육기관이 되도록 하는데 본질이 되지못하는 현상이다。

인구증가에 따른 대학의 대중화현상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학문적 차원과 대학고유의 의미를 유지해야 될 것이다。

Ⅴ、맺음말

한 나라를 급변하는 세계정세속에서 흔들리지않고 초연히 설수 있는 학문적인 대학이되기 위하여는 대학이라 할수있는데 전문적인 양성소로 전락되고 예산부족과 교수진부족, 대학의 자율성상실 등의 사례때문에 이상적인 대학정신 커리가 멀어지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학생이 진리탐구보다는 당장 취직을 위하여 전공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병폐인 것이다。더우기 사제간의 대화부족으로 소위 문제학생 지도를 위한 공장장의 형성이 되지 않고, 정부와 대학자의 일방적인 지시행정은 국가·국민에의 봉사와 더불어 국가발전및 사회봉사의 차원에서 인류세계에 공헌하는 연구교육기관이 되도록 하는데 본질이 되지못하는 현상이다。

〈本社 特輯部〉

痼疾과 惰性의 지양

사회적 變革앞에 무기력해지는 本質

大學本來의 의미 되찾아 學問研究 기능 다해야

量的증가보다 제도적 大衆化가 일반적 경향

1、변질된 本質
2、획일화된 文化
3、大學의 言論
4、大學의 位相
5、大衆化의 극복

머리말

현대사회는 고도로 발달된 과학문명사회를 이루고 있어 과거 우리의 상상속에서나 이루어졌던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고있다。우주선을 쏘아 올려 달을 정복하고 시험관을 통하여 인공수정한 아이가 태어나는등 현대과학은 못할것이 없을 정도로 발달한 것이다。이러한 문명사회를 이룩할수 있었던 것은 인류의 오랜 고난의 역사속에서 시련을 딛고 일어선 인간 승리의 결정체라 할수 있다。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구적인 지적능력과 체계있는 종합할능력이 발휘되어 오늘날의 훌륭한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인간의 능력을 발휘할수 있게끔 만든 대학의 역할은 높이 평가하여야만 될 것이다。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학문분야속에서 각기 개성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문적 기초를 확립시켜 주는 기관으로서 대학의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그런데 이구의 중가로 인해 교육열이 상승하고 긴장된 세계정세 속에서 옛부터 내려온 대학 고유의 본질이 변모해 획일화된 대중성화 되어가는것이 과연 올바른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대학의 歷史

1、대학의 기원과 발달

대학의 기원을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카데미아에서 찾고 있으며 동양에서는 중국 주(周)나라의 태학(太學)에서 찾고 있다。그러나 근대적 의미에서의 대학은 12세기의 볼로냐대학과 파리대학에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당시 서양은 기독교문화권이 형성되어 로마가 그 중심을 이루었는데 파리대학의 성립으로 해서 그후 파리는 유럽사회에서의 학문적 중심이 되어 오랫동안 전유럽사회에 대해 커다란 학문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은 파리대학에 유학했던 영국 지성인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영국 최초의 대학으로 프랑스문화를 동경하여 영국인들의 산물이었다고 할수 있다。

2、한국대학의 기원과 발달

우리나라에서도 고대 삼국시대에 태학이 있었으며 조선조에 성균관같은 고등교육기관이 일찍부터 있었으나 참다운 의미의 우나버시티는 정성제국대학으로 발달한 것이다。이러한 문명사회를 이룩할수 있었던 것은 인류의 오랜 고난의 역사속에서 시련을 딛고 일어선 인간 승리의 결정체라 할수 있다。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구적인 지적능력과 체계있는 종합할능력이 발휘되어 오늘날의 훌륭한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인간의 능력을 발휘할수 있게끔 만든 대학의 역할은 높이 평가하여야만 될 것이다。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학문분야속에서 각기 개성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문적 기초를 확립시켜 주는 기관으로서 대학의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그런데 이구의 중가로 인해 교육열이 상승하고 긴장된 세계정세 속에서 옛부터 내려온 대학 고유의 본질이 변모해 획일화된 대중성화 되어가는것이 과연 올바른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變質된 本質

사회적 變革앞에 무기력해지는 本質

量的증가보다 제도적 大衆化가 일반적 경향

大學본래 의미 되찾아 學問研究 기능 다해야

현실과 理想의 괴리 대화로 克服

▲오늘의 大學은 여러가지 시대적상황의 변천에 따라 구성원 사이에 대화의 단절등 사회번동에 따른 여러가지 諸問題를 안고있다。사진은 다향관 앞에서가졌던 지난80년 총장과의 토론회 광경。

Ⅲ、대학의 意味

대학(University)이란교수와 학생이 자유스럽운 분위기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며 제도적으로 학교체계에 있어서 최고의 교육기관이며 학문연구기관이라 할수 있다。특히 현대사회는 매스컴의 발달로 TV방송 교육기관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식전달기관이 생겨났고 KIST나 국방과학연구원등 여러 연구기관이 보다 질충적인 연구를 통하여 대학보다 앞설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여있지만 오늘날까지 대학이 학문과 진리탐구의 중추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것은 교수와 학생, 연구원들이 일체가 되어 인격자로서 진리를 탐구하고 대학을 통하여 동거적 결합을 모색하는 점이다。본한 대학은 일시적인 욕구, 충족을 위하여 형성된 기관이 아니고 인류가 이룩해 놓은 문화와 유산을 축적 계승하여 나아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는 기관인 것이다。

이와같이 대학이 인류를 위해 공헌을 할수 있었던 것은 대학의 인재양성과 학문연구와 사회봉사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인지양성은 종교등교육이나 초등교육과는 다른것으로 피교육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그 요소로 하여 무비판적인 주입이 아니라 학문의 전수이며 가치 평가적인 전수이다。전인교육을 통해 인격자와 지도자 양성을 목적하고 교양교육을 통하여 학부라정의 전문과목을 보다효율적으로 교육시켜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양성해 준다。

대학이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과 다른 점은 학문연구에 있다。대학은 학문연구를 통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학문을 창조하는 것이다。그런데 이 학문연구는 대학의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이 결합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할때 가장 효과적이라 하겠다。과거 이태리의 볼로냐 대학에서의 로마법연구와 파리대학에서의 신학연구, 등이 뒷날 역사의 커다란 전환기였던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의 기폭제가 된것을 보면 알수 있을 것이다。대중화된 현대대학에서는 강의와 교육부담이 늘어나 연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현대대학의 가장큰 문제점이라고 지적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대학이 대형화되고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에따라 대학의 지나친 봉사는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정부와 교수, 학생간의 의미있는 대화를 통하여 대학이라 할수있는데 전문적인 양성소로 전락되고 예산부족과 교수진부족, 대학의 자율성상실 등의 사례때문에 이상적인 대학정신 커리가 멀어지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학생이 진리탐구보다는 당장 취직을 위하여 전공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병폐인 것이다。더우기 사제간의 대화부족으로 소위 문제학생 지도를 위한 공장장의 형성이 되지 않고, 정부와 대학자의 일방적인 지시행정은 국가·국민에의 봉사와 더불어 국가발전및 사회봉사의 차원에서 인류세계에 공헌하는 연구교육기관이 되도록 하는데 본질이 되지못하는 현상이다。

인구증가에 따른 대학의 대중화현상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학문적 차원과 대학고유의 의미를 유지해야 될 것이다。

Ⅴ、맺음말

한 나라를 급변하는 세계정세속에서 흔들리지않고 초연히 설수 있는 학문적인 대학이되기 위하여는 대학이라 할수있는데 전문적인 양성소로 전락되고 예산부족과 교수진부족, 대학의 자율성상실 등의 사례때문에 이상적인 대학정신 커리가 멀어지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학생이 진리탐구보다는 당장 취직을 위하여 전공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병폐인 것이다。더우기 사제간의 대화부족으로 소위 문제학생 지도를 위한 공장장의 형성이 되지 않고, 정부와 대학자의 일방적인 지시행정은 국가·국민에의 봉사와 더불어 국가발전및 사회봉사의 차원에서 인류세계에 공헌하는 연구교육기관이 되도록 하는데 본질이 되지못하는 현상이다。

인구증가에 따른 대학의 대중화현상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학문적 차원과 대학고유의 의미를 유지해야 될 것이다。

〈本社 特輯部〉

不義를 비관 할수있는 大學人

수학을 위한 진통은 감수해야

拜金主義 사조 知性으로 예방

時論

事物과 事理에 관한 定義는 대개가 능하지만 정의에 充分適切히 들어맞아 주는 일이 세상사엔별로없다。마치 아무런 질병을 앓지 않은 채 살고 있는 사람이 드물듯。그리고 그렇게 잘 맞아들지 않는 事事를 위하여 우리는 「인간이니까」라는 매우 周到한 변명을 준비하고 있다。되도록 그러한 준비는 불필요한것이 될수록 좋을에도 불구하고 너무 풍성해졌고, 세련되었고 고상해졌다。

세상은 매우 분주해졌고 매사는 열성과 부분함을 여전히 요구 함으로서 성실히 피곤해야 하고 한 없이 톱톱로울수 밖에 없는 쪽으로 나아가게된 것이다。

「餘裕」들을 어떻게 바빠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채, 바쁘기만을 고집하는것 같다。돈 벌기에 바쁘고 또 돈 쓰기에 분주한 것이어서, 좋은 음식 찾기에 바쁘고 잘 먹고는 쩐 살 빼기에 헬스클럽 수영장을 바쁘게 하는 것이 이상하다。이것이 누구든부터 언제 시작하여 옳아 온 것인지는 잘모를 일이나, 不義에 대한 성급한 비판, 權利의 分明한 侵害에 대한 抗辯기능을 沒收당한것은 아니라는 점이다。우리는 우리의 수준에 걸맞지 않게 먹거리를 잡한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이것이 누구든부터 시작했다。

幾千년으로 콩기름 키워내고 수출장려 마다하는 폐단을 바꿔서 외국으로 보내고 等式을 信奉한 그 처절한 관념이 우리의 知性에 부끄럼 없이 스미는 점에 우리는 긴장해야 한다。그 놀도질 게 깔린 拜金主義가 오늘 날의 우리 터전을 이토록 메마르게한 원흉임을 感知해야 한다。金力을 위해 모든 能力을 소비하는 오늘에 명정해도 우리는 부유할 수 없는 것이다。

金錢을 위해 秩序와 倫理와 道德은 희생되어도 좋았던 한국판 병폐는 지성의 차가움으로 예방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미 이미 오염된 것은 빨리 소제되어야 한다는 責任感에 당연히 우리의 부분이 있다는 것을 看過할 수 없으며 책임의 所在는 너, 不義에 대한 성급한 비판, 權利의 分明한 侵害에 대한 抗辯기능을 沒收당한것은 아니라는 점이다。우리는 우리의 수준에 걸맞지 않게 먹거리를 잡한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이것이 누구든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책의 제산속에서 除外된 것은 예랑인 것이다。

우리 양의 체재는 분명 불에 급급한 매사에 흥미를 가질수 밖에 없었고, 그 나랑에 방출된 우리는 質을추구하는 데에 더 比重되어지고 있다。그러나 과거水準의 댓거로 과거와 동일한 質이면서 향상된 質이기를 기대해서는 「여지」인 것이요, 量과 質要에서 어느 한 쪽을 동가식기면 다른쪽의 差額에 관한 是非는 여전히 생략할 수 없는 정직의 것이로 남아 있을는 당연한 것이다。

근래의 대학사회에는 예전에 「낭만」이라는 밴데이지로 收容되었던 「나태」가 사라지기를 중용당했고, 대학은 소極的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되어져서 이젠 경하하고 흥분하는 일이 되려어놀라운 일이 되었다。육체에 얹드린 초췌한 열을 앓은 그냥 지나쳐면서 스트리퍼경의 가슴에는 사심 없이 고액권이 쑤셔지는 것이 비난 받을 것이못되게 되었고, 죄 없이 져울 잘 자는 개구리 뛰쳐 내는 유치한 짓거리에다 지령이 파내고 메추리 알 품아 내는 치사한 직업들이 서슴 없이 새로 바빠졌다。

도 모르는 것이다。

월등한 교양이 월등이 아닌 학문에 貶質가 많다。즉 이것은 베를린대학이 사회봉사적이며 실용주의적 대학이라는 새로운 이념과 유형의 대학을 형성한 미국대학의 모체가 되었다는 점이다。이후 미국은 과거 식민지시대에 부유층 자제들을 교육시키고 직업을 양성하는 종속·근대 유럽대학 모방에서 벗어나 독자적이고 새로운 실용주의대학을 건설하여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면 명실공히 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여기서 우리는 과거 학문의 중요성과 대학의 대학다운 존재의 의미를 재인식하고 대학을 건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즉 이것은 교수와 학생, 연구원들이 일체가 되어 인격자로서 진리를 탐구하고 대학을 통하여 동거적 결합을 모색하는 점이다。본한 대학은 일시적인 욕구, 충족을 위하여 형성된 기관이 아니고 인류가 이룩해 놓은 문화와 유산을 축적 계승하여 나아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는 기관인 것이다。

이와같이 대학이 인류를 위해 공헌을 할수 있었던 것은 대학의 인재양성과 학문연구와 사회봉사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인지양성은 종교등교육이나 초등교육과는 다른것으로 피교육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그 요소로 하여 무비판적인 주입이 아니라 학문의 전수이며 가치 평가적인 전수이다。전인교육을 통해 인격자와 지도자 양성을 목적하고 교양교육을 통하여 학부라정의 전문과목을 보다효율적으로 교육시켜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양성해 준다。

대학이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과 다른 점은 학문연구에 있다。대학은 학문연구를 통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학문을 창조하는 것이다。그런데 이 학문연구는 대학의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이 결합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할때 가장 효과적이라 하겠다。과거 이태리의 볼로냐 대학에서의 로마법연구와 파리대학에서의 신학연구, 등이 뒷날 역사의 커다란 전환기였던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의 기폭제가 된것을 보면 알수 있을 것이다。대중화된 현대대학에서는 강의와 교육부담이 늘어나 연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현대대학의 가장큰 문제점이라고 지적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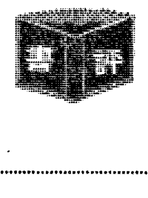
오늘날과 같이 대학이 대형화되고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에따라 대학의 지나친 봉사는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정부와 교수, 학생간의 의미있는 대화를 통하여 대학이라 할수있는데 전문적인 양성소로 전락되고 예산부족과 교수진부족, 대학의 자율성상실 등의 사례때문에 이상적인 대학정신 커리가 멀어지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학생이 진리탐구보다는 당장 취직을 위하여 전공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병폐인 것이다。더우기 사제간의 대화부족으로 소위 문제학생 지도를 위한 공장장의 형성이 되지 않고, 정부와 대학자의 일방적인 지시행정은 국가·국민에의 봉사와 더불어 국가발전및 사회봉사의 차원에서 인류세계에 공헌하는 연구교육기관이 되도록 하는데 본질이 되지못하는 현상이다。

인구증가에 따른 대학의 대중화현상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학문적 차원과 대학고유의 의미를 유지해야 될 것이다。

「杜詩諺解鈔」

李丙疇 編校



근자에 杜詩에 관한 두 권의 무게 있는 석적이 우리의 書架를 장식해 주었으니, 하나는 『詩聖 杜甫』이고, 다른 하나는 여기에 소개하는 『杜詩諺解鈔』이다。

이 책은 杜詩 총1467수의 3분의1에 가까운 441수를 鈔選하였으니, 詩聖 杜甫의 교재로는 물론이고, 作年別로 엮어 놓았기 때문에 杜詩의 연구가 더 중요한 점이다。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國語學 講說이나 國文學講說에 두루 쓸 수 있는 알맞은 敎材라는 풀이고, 現代文學 특히 詩를 專攻하는 분들도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한편 책의 체제만 보더라도 編者의 자상한 편집의 일단을 볼 수 있으니, 예를 들면 각 페마다 그 아래에 참고할 典籍의 出典을 풀었고, 잘못 았으며, 읽기 쉬운 漢字에는 音을 달아 한편의 詩 안에서는 聯으로 나누어지는 곳에 표를 하고, 原詩를 찾을 수 있게 했다。版型이 新菊版이라 시각적인 효과와 아울러 여백의 많음이 독자에게는 좋다。노트도 걸 들어서 활용하기에 좋다。

〈文理大교수·國語學〉

現代文學에 필수적인 「詩聖杜甫」

「杜詩諺解鈔」 鈔選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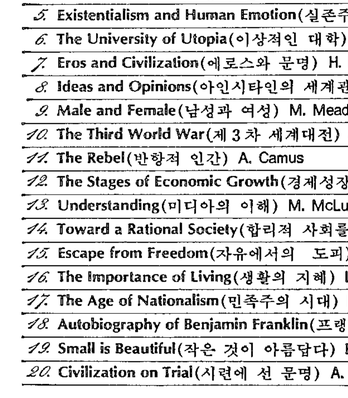
作家論의 연구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부룻 어느 작가의 작품을 鈔選한다는 것은 그 작가의 全作品을 完讀해야 비로소 할 수 있는 점이다。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國語學 講說이나 國文學講說에 두루 쓸 수 있는 알맞은 敎材로는 물론이고, 現代文學 특히 詩를 專攻하는 분들도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한편 책의 체제만 보더라도 編者의 자상한 편집의 일단을 볼 수 있으니, 예를 들면 각 페마다 그 아래에 참고할 典籍의 出典을 풀었고, 잘못 았으며, 읽기 쉬운 漢字에는 音을 달아 한편의 詩 안에서는 聯으로 나누어지는 곳에 표를 하고, 原詩를 찾을 수 있게 했다。版型이 新菊版이라 시각적인 효과와 아울러 여백의 많음이 독자에게는 좋다。노트도 걸 들어서 활용하기에 좋다。

〈文理大교수·國語學〉

東國漫評



◇웬 일이지(?)

보람있는 大学生活 4년을 위한 時事英語社의 교양시리즈

大学英語文庫 〔全100卷〕

영어도 늘고 학문도 깊어가는 大学人의 教養名著

■ 전공에 관계없이 大学人이면 누구나 읽어야 할 20세기 名著 100권.
■ 권위 教授의 解題 및 친절한 FOOTNOTES

제1회 配本 20권

1. Wisdom of the West(서구의 지혜) B. Russell
2. The Age of Uncertainty(불확실성의 시대) J. Galbraith
3. The Third Wave(제3의 물결) A. Toffler
4. To Have or To Be(소유냐 존재냐) E. Fromm
5. Existentialism and Human Emotion(실존주의) J.P. Sartre
6. The University of Utopia(이상적인 대학) R.M. Hutchins
7. Eros and Civilization(에로스와 문명) H. Marcuse
8. Ideas and Opinions(아인시타인의 세계관) A. Einstein
9. Male and Female(남성과 여성) M. Mead
10. The Third World War(제3차 세계대전) J. Hackett
11. The Rebel(반항적 인간) A. Camus
12.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경제성장의 제단계) W. Rostow
13. Understanding(미디아의 이해) M. McLuhan
14. Toward a Rational Society(합리적 사회를 지향하여) J. Habermas
15. Escape from Freedom(자유에서의 도피) E. Fromm
16. The Importance of Living(생활의 지혜) Lin Yutang
17. The Age of Nationalism(민족주의 시대) H. Kohn
18. Autobiography of Benjamin Franklin(프랭클린 자서전) B. Franklin
19. Small is Beautiful(작은 것이 아름답다) E.F. Schumacher
20. Civilization on Trial(시련에 선 문명) A. Toynbee

4·6판/값 1,000원

英作文辞典

全9卷

취직시험은 영작실력이 좌우

1 英作文의 基本要領
2 基本文型英作文
3 日記書翰英作文
4 現代中級英作文
5 就職英作文
6 時事英作文
7 貿易英作文
8 高級英作演習
9 英作文辞典

4·6판/전질 값 35,000원

세계적 Bestseller 「순교자」의 作家

金恩國 全集

The Martyred
金恩國을 일약 세계적인 작가로 만들어 준 代表作이며, 人間 양심의 문제를 파고든 問題의 英文小說.
金恩國 著/張旺祿 註釋/값 3,500원

순 교 자
「순교자」는 욥과 도스토예프스키와 알베르 까뮈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받은 英文小說 The Martyred의 번역판.
金恩國 著/都正一 譯/값 3,200원

The Innocent
前作 「순교자」에 이어 미국문단에 확고한 기반을 구축해준 第2作. 祖國의 5·16革命을 素材로 한 야심의 역작.
金恩國 著/張旺祿 註釋/값 5,000원

Lost Names
나라 잃은 民族의 悲哀와 痛恨을 그린 문제의 제3作으로 日帝下의 韓國民族의 시련을 素材로 한 自敍傳的인 英文小說.
金恩國 著/都正一 註釋/값 3,200원

빼앗긴 이름
迫力있고 生動感 넘치는 Lost Names의 분위기를 유창하고 생생하게 옮긴 金恩國 第3作의 한글번역판.
金恩國 著/都正一 譯/값 3,200원

大学生活全書 全10卷

大学生活의 설계가 一生의 설계!
—신입생 여러분, 이 책으로 앞날을 설계하세요—

20세기의 教養名著 申一澈 金容駿
大学生과 海外留学 朴南植 外23人共著
大学生과 外国語 呂石基 外17人共著
사랑과 友情의 世界 박완서 外17人共著
大学講義와 노우트 申一澈 外14人共著
読書와 知的生活 李炳注 外25人共著
大学生과 教養 차경수 外22人共著
大学生과 思想 이민호 外22人共著
大学生과 学問 金哲洙 外20人共著
韓国学入門 〈近刊〉

국판/고급모조지/각권 값 2,500원

韓国文化 시리즈 全11卷

韓國文化를 가장 깊이있게 다룬 韓國学叢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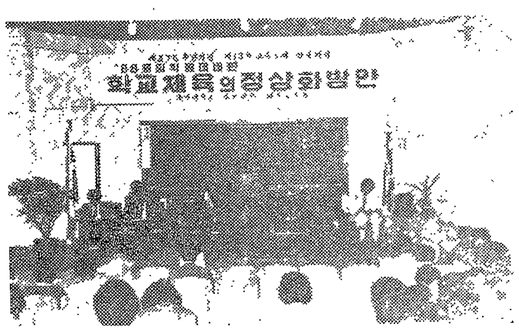
1. 韓國文學의 諧謔 張德順 呂石基 外
2. 韓國의 선비文化 高柄翊 李佶成 外
3. 韓國의 佛教文化 黃譯永 洪庭植 外
4. 韓國의 民俗文化 李杜鉉 張籌根 外
5. 韓國의 法律文化 田鳳德 李兌榮 外
6. 韓國의 社會 崔在錫 金彩周 外
7. 韓國의 民話 선녀와 나무꾼 外
8. 韓國의 經濟生活 趙璣濬 姜萬吉 外
9. 韓國人의 生活風習 金烈圭 李符永 外
10. 韓國의 思想 崔奭佑 文相熙 作
11. 韓國文化의 諸問題 李丙燾 朴星來 外

국제문화재단 편 각권 값 2,000원

時事英語社 전국 서점에서 판매중!
주문전화 : (269) 6620~3

「敎育問題 심포지움」 열려

학교 체육 正常化 방안 論議



◇사범대 주최 제13회 교육문제 심포지엄이 지난 29일 학림관 소강당서 열려 「88올림픽을 대비한 學校체육 정상화방안」이 논의되었다.

사범대학주최 제13회 교육문제 심포지엄이 지난달 29일 오후 1시부터 安璜均(사대·체교과) 교수 姜信禧(서울대) 교수 李三東(건국대) 교수등 4명의 발표자와 이제기(국회) 文정영호(행정부) 교수 金鎭先 (이화여대) 교수등 2명의 토론자가 참석한 가운데 「88올림픽을 대비한 학교체육의 정상화방안」이라는 주제로 학림관소강당에서 개최되었다.

朱炳瑞(사대 체교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安교수는 「체육교사 교육의 문제와 그 대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급격한 사회변화에 알맞는 체육교육변화를 위해 우선 교사교육을 연구하야 한다』고 하고 현재 당면한 체육교육의 문제로 「첫째, 체육교과과목의 불합리 들째, 사회체육지도자 및 스포츠경기지도자 양성 미비 셋째, 우수학생의 체육교사 지망 회피 넷째, 현직교사의 교육여건 미흡 다섯째, 교사자격제도의 문제 여섯째, 교사양성교육의 시설및 실험실 부족」으로 들고 그 해결방안으로 다양한 장학 문제는 체육종목표가 너무 적고 불합리하데서 발생한다며 『체력평가는 절대적이어야 하고 내신제가 적용되는 이 상황에서는 현장전임교에게 평가의 기본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姜교수는 「학교체육 교과과정 개선책」에 대한 발표에서 학령별·남·녀별·학교별 중고등학교·체육교육 과정을 단계에 맞는 목표·내용·지도방법을 체계적으로 밝히고 시간배 해결방안으로 3단계로 과정을 나누어 각 단계별 교과서 편찬 및 체육교사 재교육 실험실 부족」으로 들고 그 해결방안으로 다양한 장학 문제 여섯째, 체육교과과목의 문제 여섯째, 교사자격제도의 문제 여섯째, 교사양성교육의 시설및 실험실 부족」으로 들고 그 해결방안으로 다양한 장학 문제는 체육종목표가 너무 적고 불합리하데서 발생한다며 『체력평가는 절대적이어야 하고 내신제가 적용되는 이 상황에서는 현장전임교에게 평가의 기본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姜교수는 「학교체육 교과과정 개선책」에 대한 발표에서 학령별·남·녀별·학교별 중고등학교·체육교육 과정을 단계에 맞는 목표·내용·지도방법을 체계적으로 밝히고 시간배 해결방안으로 3단계로 과정을 나누어 각 단계별 교과서 편찬 및 체육교사 재교육 실험실 부족」으로 들고 그 해결방안으로 다양한 장학 문제는 체육종목표가 너무 적고 불합리하데서 발생한다며 『체력평가는 절대적이어야 하고 내신제가 적용되는 이 상황에서는 현장전임교에게 평가의 기본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世界大學出版物 전시회」

본교는 7日부터 佛書1백53권 전시

다음 29일 오후 1시부터 安璜均(사대·체교과) 교수 姜信禧(서울대) 교수 李三東(건국대) 교수등 4명의 발표자와 이제기(국회) 文정영호(행정부) 교수 金鎭先(이화여대) 교수등 2명의 토론자가 참석한 가운데 「88올림픽을 대비한 학교체육의 정상화방안」이라는 주제로 학림관소강당에서 개최되었다.

朱炳瑞(사대 체교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安교수는 「체육교사 교육의 문제와 그 대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급격한 사회변화에 알맞는 체육교육변화를 위해 우선 교사교육을 연구하야 한다』고 하고 현재 당면한 체육교육의 문제로 「첫째, 체육교과과목의 불합리 들째, 사회체육지도자 및 스포츠경기지도자 양성 미비 셋째, 우수학생의 체육교사 지망 회피 넷째, 현직교사의 교육여건 미흡 다섯째, 교사자격제도의 문제 여섯째, 교사양성교육의 시설및 실험실 부족」으로 들고 그 해결방안으로 다양한 장학 문제는 체육종목표가 너무 적고 불합리하데서 발생한다며 『체력평가는 절대적이어야 하고 내신제가 적용되는 이 상황에서는 현장전임교에게 평가의 기본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姜교수는 「학교체육 교과과정 개선책」에 대한 발표에서 학령별·남·녀별·학교별 중고등학교·체육교육 과정을 단계에 맞는 목표·내용·지도방법을 체계적으로 밝히고 시간배 해결방안으로 3단계로 과정을 나누어 각 단계별 교과서 편찬 및 체육교사 재교육 실험실 부족」으로 들고 그 해결방안으로 다양한 장학 문제는 체육종목표가 너무 적고 불합리하데서 발생한다며 『체력평가는 절대적이어야 하고 내신제가 적용되는 이 상황에서는 현장전임교에게 평가의 기본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本校의 佛書 1백53권이 오는 7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교보문고에서 열리는 「韓國및 世界大學出版物展示會」에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열리는 전시회는 교보문고가 주최하고, 한국대학출판부 협회가 후원했는데 英·美國등의 50여개 大학출판부로 부터 6천부 전시되며, 일본의 13개 大學에서도 2천부 전시할 예정인데, 한국에서는 本校의 한국佛敎전적「팔만대보」「고려대장경」13種 1백53권을 비롯 전국 36개대학과 5개 연구기관에서 천5백부가 각각 출품, 전시될 예정인데 이번에 전시되는 책들은 전시회 종료후 본교에 기증될 예정이다.

化學科 「유기화학세미나」

지난26일 尹能民교수 연사로

화학회주최 「유기화학 세미나 (제목=Organic Reduction with Boronhydrides)」가 尹能民 (서강대 화학과) 교수를 연사로 초청 지난 26일 교수세미나실에서 있었다.

이날 강연에서 尹교수는 BH_3 (보론) 화합물의 유기적 환원과 슬레이더를 통한 유기화합물의 환원제등 도움이 대해 강의하였다.

공영과 주최 「學術강연회」

5日 3時

공영과 주최 「신체조·위」의 강연회가 오는 5일 3시부터 공대 제1세미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현재의 폴로경기 문제점과 그에 따른 올림픽을 대비한 학교체육 정상화방안에 대한 발표자상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이번 발표자상에서 최고상은 정영호(행정부)·김열함(協)·김종권(협)·이재옥(TOEFL 학원장)·민병철(生活英語 학원장)·박성원(동경日本語 학원장)·김운태(서울대 교수)·배한동(경북대 교수)·김윤경(서울대 교수)·김종서(서울대 교수)·이홍직(고려대 교수)·이상로(서울대 교수)·이상은(서울대 교수)·이상백(서울대 교수)·이병도(서울대 교수)·이선근(서울대 교수)·이숭녕(서울대 교수)·이희승(서울대 교수)·이인기(서울대 교수)·이인기(서울대 교수)·이인기

軍에 있는 아우舜에게

舜, 오늘 평생의 밥 맛은 어떠한지? 군대에서 세월이란 밥그릇수로 통하니, 네가 먹은 밥그릇수도 이젠 제법 상당하겠구나.

며칠전 네게 발송 편지는 온통 계절의 변화에대한 것이였으나, 한가절 보초서며 바라보는 하늘은 늘 같고 지녀다 이따금 쳐다보는 그 단순한 하늘은 아니라고, 얼마 전에 편지 끝에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있지. 『舜아, 하루에 한번 많이 라도 하늘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초서며 바라보는 하늘은 이곳 서울에서 보는 하늘과는 많은 차이가 있겠지. 나는 눈으로 보고 녀는 마음으로 볼테니까 말이다.

네가 말한대로 보초근무 시간은 네게 지상 최대의 작우시간인 것 같다. 네가 이야기한 밤과 낮의 차이점, 그 신비스러운 차이점은 오래간만에 네게 한가로운 시간을 마니 한가로운 마음의 여류를 갖게 해주었다. 아마 네가 부상년, 부념 속에서 볼 수있는 활라적인 자연의 현상은 연여 그 이후의 상태이리라.

이번 편지는 지난 겨울 휴가이후 처음 받아 본 것이라 더욱반가왔다. 그러나 네 편지를 읽는기쁨은 단지 오랫만에 받아 본 것이라기 보단 그 내용이나 필치의 정숙함에 있었던 것 같다.

1년에 한번씩 휴가를 나오는 녀석의 모습을 보며 항상 느끼는것은 네가많이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아마 실상은 녀를 보는 내 자신이 변하고 있는지 않을수 없다만.

나는 아직도 지난 겨울 휴가때 녀의 모습을 잊을수가 없다. 처음 느끼게 해 준다고 체별하듯 내밀이면, 귀대 하루전에 녀는 기어이 울보를 폭발하고 말았지.

舜에 관계된 일체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던 녀가 그렇게 울다니 너무나 의외였다. 조용한 녀석이 그렇게 울음을 터뜨리니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였다. 녀가 울음을 그칠때까지 나는 그저 녀의 등만 두드려주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불안한 예감은 결국 적중한 셈이 되었다. 간단히 지는 지휘관은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녀무도 정확하게 느끼고 있었다. 네가 휴가를 나오는 날 부터 부대에서는 사단장이 바뀐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그리고 사단장이 바뀌면 그 사단의 분위기도 바뀌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므로 네가 휴가를 나오는 날 부터 부대에서는 사단장이 바뀌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네가 휴가를 나오는 날 부터 부대에서는 사단장이 바뀌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네가 휴가를 나오는 날 부터 부대에서는 사단장이 바뀌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시청앞에서 앞장서 소리치던 X는 어디서 거드름을피우고 지껄이던 X는 고

시에 붙어 끝발좋은 자리에 발령을…

"세상을 적당히 살줄도 알아야겠다."

◇短篇小說

循環期의 아침

구태균글 〈文理大 國文科〉

김재권그림 〈佛敎大 미술과〉

〈完〉

◇短篇小說

循環期의 아침

구 태 균 글 〈文理大 國文科〉

김 재 권 그림 〈佛敎大 미술과〉

〈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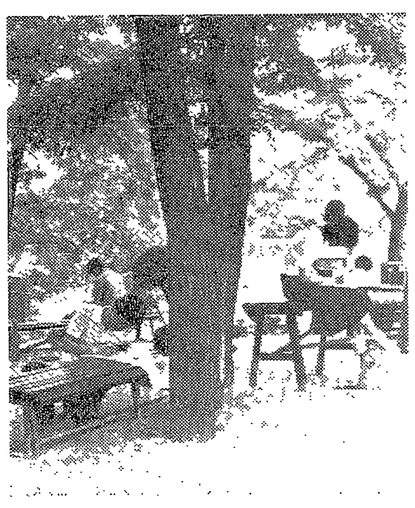
文化풍토, 文學觀은 상호 연관 白日場 數증가, 作品水準 못미쳐

創作풍토 造成아쉬워

제20회 高校 文學 콩쿠르를 계기로

획일적 敎育… 文學徒 실험정신 상실

— 자신의 목소리 表現하는데 힘써야



◇고교백일장이 20회를 거듭해오면서 지방세가 서울세를 압도해 서울학생들의 정서가 상당히 메말라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全國男女高校生文學총후르」, 우리는 불써 20년째라는 역사를 헤오고 있다.

이것은 한 個人이나 同好人을 몇몇이 모여서 베푸는 행사가 아니요, 타 대학에서와 같이 單大나 一個學科가 주최하는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행사는 겨교적인 행사로뒷받침 되어왔고(文學총후르트」라는 이름에 「東國文學」이라는 신뢰감이 붙어서 인지) 고교 文學徒들이나 文學전문가들로부터 그권위를 날받아 왔다.

그러나 近來에 들어와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지는 現象과 같이 高校內에서 文學이나 그밖의 창작藝術活動이 가지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게 되고, 특히 고교평준화와 교육개혁등 일반적인 사회상황이나 영1식 사이비 청년文化의 만연등으로 高校生의식이 분열되면서 文學의 기운은 점점 쇠퇴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本총후르의 수준이나 지위역시 흔들리지 않을수 없게 되었고 사실이라하겠다.

高校백일장의意味

事實 본교뿐아니라 우리나라의 여러 대학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열리고 있는 高校生백일장의 의미를 따지자면 상당한 시간과 정력이 요구되기도 하겠고 또 대부분 行事들은 흔히 「高校 文學徒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미래의 韓國문단을 이끌어 갈 인재의 발굴육성해야 라는 식의 간단한 표현으로 그 존재에 대한 의의와 필요·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각대학에서 주최하는 「高校 백일장」이 그러한 목적만을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각 대학마다 각기 특정이 있겠지만, 대체로 그 논리는바는 유능한 문학도의 스카웃, 학교홍보등에서도 일치될 수 있다.

그 일례로 몇몇 大學